

# 2022. 3월 1주 언론보도 스크랩

## [정책보도] 강원소방, 봄철화재예방대책 추진

G1방송

2022년 03월 01일  
(강원)

### 강원소방, 봄철화재예방대책 추진

정창영 기자



강원도소방본부가 일 년 중 화재에 가장 취약한 봄철을 맞아 오늘(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원소방은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32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생활치료센터와 안심숙소 등 코로나19 시설에 화재안전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투표소와 개표소 주변에 소방력을 배치해 비상경계근무를 설 계획입니다.

## 봄철 화재예방 대책 5월31일까지 추진

### 도소방본부

강원도소방본부는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1일부터 5월31일까지 '2022년 봄철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1만192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봄철이 전체의 30.7%(3,132건)를 차지해 화재 발생 빈도가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연평균 742억3,000만여 원이었고, 이 중 봄철이 차지하는 비중은 72.8%였다. 2019년 고성산불의 영향이 크지만 봄철 화재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소방서장들의 공사현장 지도방문, 코로나19 시설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 컨설팅, 다중이용시설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순찬기자**

(11.6\*7.5)cm

江原日報

2022년 03월 03일  
04면 (사회)

## 8일부터 대선 투·개표소 특별경계근무 돌입

### 도소방본부

강원도소방본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오는 8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별경계근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도내 18개 소방서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투·개표소에 대한 화재예방 순찰강화와 소방서장 화재예방 지도방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도소방본부는 지난달 7일부

터 도내 투표소 670개소, 사전투표소 196개소, 개표소 18개소 등 총 884개소의 투·개표소에 대한 위험요소 제거 및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용석진 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대통령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화재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시고 소중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11.6\*8.5)cm

# 강원소방, 대통령 선거 대비 특별경계근무

투개표소 화재예방 순찰강화, 소방력 근접배치 등

2022년 03월 02일 (수) 13:55:01

윤성규 기자 ✉ sky@safetoday.kr

강원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오는 3월8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3월2일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3월8일 오후 6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강원도 내 18개 소방서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특별경계근무 중점추진 사항은 ▲투개표소에 대한 화재예방 순찰강화 ▲시·군 개표소 18개소 인근 소방력 근접배치 ▲투개표소에 대한 소방서장 화재예방 지도방문 등 ▲소방력 100% 대응태세 유지를 추진하며,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1만여명과 장비 700여대를 동원해 화재대응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강원소방본부는 지난 2월7일부터 도내 투표소 670개소, 사전투표소 196개소, 개표소 18개소 등 총 884개소의 투개표소에 대한 위험요소 제거 및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를 이미 실시했다.

강원소방본부 응석진 예방안전과장은 “대통령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화재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심하시고 소중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인 터 뷰] 이흥교 소방청장 “순직사고 제로화 목표” 인터뷰

G1방송

2022년 02월 28일  
(강원)

### <뉴스인> 이흥교 소방청장, "순직사고 제로화 목표"

김형기 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말,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삼척 출신의 이흥교 소방청장입니다.

9급 소방사로 출발해, 6만 5천명의 소방조직을 이끄는 소방총수의 자리에 오른 이흥교 청장을 만나, 소방 현안을 비롯해 소방청장으로서의 비전과 소회 등을 들어봤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이흥교 소방청장은 작년 말 취임 이후 현재까지,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소방관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 이어 영덕 산불까지, 대형사고와 화재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가슴 아프지만, 직원 세 명이 순직한 냉동창고 화재는 지휘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함께 지켜내는 게, 소방의 영원한 숙제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런 순직사고가 나지 않도록 평시훈련,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첨단장비, 과학화된 장비, 무인시스템, 로봇이나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미국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순직한 소방대원은 141명에 달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순직 소방대원 수는 최근 5년간 평균 4명 정도지만, 이 청장은 순직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소방청장으로서의 비전도, 궤를 같이 합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화재안전도를 세계 최고 그룹에 진입시키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한 소방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현장에 강하고 행정에도 유능한 소방청이 되자 하는 측면을 소방발전 4.0시대로 명명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속에서 소방이 더 발전하자는 의미"

1986년 소방에 투신해, 1993년 소방간부후보로 임용된 뒤, 강원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청 차장 등을 거쳐 36년 만에 소방조직의 수장이 된 이홍교 청장.

가정형편 때문에 중고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쳤지만, 온화한 성품에 뛰어난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고향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도 소방본부장 때, 평창동계올림픽을 안전올림픽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전국의 소방관과 소방차를 출동시켜 2019년 고성산불을 조기 진화했고, 대형 소방헬기 도입과 양양.화천.양구소방서 신설도 그의 작품입니다.

[인터뷰]

"강릉에 건립 예정인 소방심신수련원을 올해 용역 들어가고 내년 설계에 들어가 최대한 빨리 2025년 정도는 개원해야 됩니다. 치료도 받고 치유도 하고 휴양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강릉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청장은 주황색 기동복을 입고 현장을 누빌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천생 소방관입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 [정책보도] 강원소방본부장,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점검지도

### 윤상기 본부장, 하이트진로 공장 화재안전 점검

윤 본부장 “화재 방지는 화재예방이 가장 중요” 강조

윤상기 강원소방본부장은 3월3일 홍천군 소재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을 방문해 공장 관계자들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강원도 내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관계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점검은 소방·방화시설 등 적정 관리여부, 자위소방대의 안전관리 체제 강화 등에 중점을 뒀으며 특히, 공장내 질산 등 위험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강원도 내 화재발생 현황은 410건에 사상자 20명(사망 4명, 부상 16명)의 사상자와 4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사상자는 절반(▽ 사망 4명, ▽ 부상 16명)으로 감소했으며 재산피해도 7억원 가량 감소했다.



강원소방본부는 화재예방 저감을 위해 요양원·노인복지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건축공사현장 관서장 지도 방문, 비상구 폐쇄 등 집중단속,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상기 강원소방본부장은 “화재 방지는 화재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계자의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줄 것”을 당부했다.

**(교양프로) 한국인의 밥상(특별기획 / 나눔밥상 / 춘천소방서)**





**[콘 텐 츠] 소방청TV 인플루언서 협업제작 [육상대응팀]**

